

날씨 전문가 '기상캐스터'

채널A 기상캐스터 추혜정

여러분은 소풍 전날 밤, 다음날 비가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잠들어 본 적이 있나요? 가족과 해변으로 여름휴가를 떠나기 전 파도의 높이를 체크해 본 경험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가기 전에 긴팔을 입을 까, 반팔을 입을 까 고민하며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을 검색해 본 적은?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는 것! 날씨입니다.

사람마다 중요한 일정이 잡힌 날은 모두 다릅니다. 또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는 작물을 키우는 농부들이나, 파도가 높은 날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갔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어부들처럼 매일매일 날씨를 체크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밝은 미소와 함께 우리에게 날씨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상캐스터입니다.

기상캐스터를 '뉴스 말미에 잠시 등장해 간단하게 날씨만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상캐스터는 기상청의 예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날씨정보를 정리하고, 눈에 잘 띄는 그래프로 만들어 귀에 쏙쏙 들리도록 직접 작성한 대본과 함께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이런 기상캐스터를 두고 채널A 추혜정 기상캐스터는 '날씨전문가'라고 표현합니다.

결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날씨에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정확

한 날씨정보를 제공해주는 날씨전문가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 기상캐스터가 하는 일은?

멋지게 차려입고 대본만 읽는다? NO!

날씨예보 방송의 기획부터 연출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준비

국내외 날씨정보 확인 → 대본 작성 → 예보 화면 구성

→ 날씨에 맞는 의상 선택

기상캐스터는 날씨예보 방송의 모든 과정을 직접 준비합니다. 기상캐스터가 출근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국내외 날씨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상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날씨정보를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을 마치면, 1분 30초 분량의 대본을 작성합니다.

날씨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화면을 기획하는 것도 기상캐스터의 역할입니다. 어떤 그래프를 사용하고 어떤 색을 써야 시청자에게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다음, 그래픽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화면을 구성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본과 화면이 모두 준비되면 기상캐스터가 직접 메이크업과 의상을 고릅니다. 기상캐스터는 자신의 메이크업과 의상도 절대 자신의 취향에 따라 고르지 않습니다. 화창한 날에는 화려한 옷을, 흐린 날에는 차분한 색상의 옷을 입는 등, 그날의 날씨에 어떤 의상과 메이크업이 잘 어울리는지 신중하게 고민하여 선택하지요.

▼ **기상캐스터에게 필요한 자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

잘못된 정보 제공하면 큰 불편 초래할 수 있어
 ▶ 기상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
 ▶ 실시간으로 날씨정보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전달해야!

채널A 추혜정 기상캐스터는 “기상캐스터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자질은 책임감”이라며 기상캐스터의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날씨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9도로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감기에 걸릴 수도 있으니 장시간 야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기상캐스터가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을 영상 9도로 잘못 전달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날씨예보를 들은 사람들이 야외활동을 계획하거나 평소보다 옷을 가볍게 입고 외출한다면 큰 불편을 호소하겠지요. 따라서 기상캐스터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서 시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게다가 날씨는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갑자기 폭우나 우박이 쏟아지기도 하고, 전날과 대비해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기상캐스터에게는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꾸준히 확인하는 끈기도 요구됩니다.

▼ **기상캐스터가 되려면?** 높은 경쟁률과 비정기적 채용, 평소에 완벽한 준비되어 있어야

날씨에 대한 지식 필요
 ▶ 대기과학, 기상학 등 전공하면 유리
 대본 작성, 방송 진행까지
 ▶ 신문방송학 전공도 도움
 높은 경쟁률, 결원이 생겨야만 채용
 ▶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기상캐스터는 기상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분석하여 시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상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이를 위해 대기과학, 기상학 등을 전공하여 관련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기상캐스터는 직접 대본을 작성한 뒤 자신이 작성한 대본을 읽으며 날씨예보 방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상캐스터가 되기 위해선 방송사 입사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기상캐스터의 경쟁률은 수백 대 일, 심지어 수천 대 일을 웃도는 만큼 단단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각 방송사의 방송아카데미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스스로 대본을 작성해보고 평소에 꾸준히 발음연습을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기상캐스터 방송사 입사시험 진행 과정

서류전형 → 카메라테스트 → 면접

기상캐스터 방송사 입사 시험은 서류전형과 카메라테스트, 면접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추혜정 채널A 기상캐스터는 “일반적으로 방송사의 기상캐스터 채용은 공석이 생길때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에 따라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평소애 완벽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기상캐스터, 이것만은 꼭 알고 하라! 실내촬영은 텅 빈 벽 앞에서, 굿은 날씨 감수하며 야외촬영도...

잘못된 정보 제공하면 큰 불편 초래할 수 있어

▶ 기상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

▶ 실시간으로 날씨정보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전달해야!

기상예보 스튜디오는 텅 비어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기상캐스터의 실내촬영은 아무것도 없는 푸른 벽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푸른색을 인식하지 못하는 특수촬영을 하고 여기에 그래픽으로 만든 날씨화면을 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상캐스터가 날씨예보를 하는 모습을 떠올려보세요. 특히 지도를 띄워놓고 지역별 날씨정보를 전달할 때, 해당지

역을 정확하게 짚어내지요. 따라서 기상캐스터는 아무것도 없는 푸른 벽 위에 지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해당지역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기상캐스터는 야외촬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날씨를 전하기 위해서이지요. 기상캐스터를 꿈꾸는 학생은 찬바람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굿은 날에도 시청자에게 생생한 날씨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상캐스터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달리, 기상캐스터는 길지 않은 날씨예보방송을 위해 직접 대본을 작성하고 화면을 기획하는 등 수많은 준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늘 기상정보를 체크해야하고,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아주 작은 수치도 정확하게 전달해야하는 등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기상캐스터를 꿈꾸는 학생은 ‘기상캐스터는 멋지게 차려 입고 대본만 읽는 사람’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 날씨에 대한 지식, 시청자에게 정확한 날씨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책임감 등 기상캐스터에게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길 바랍니다.